

03

페미니즘 출산 정치의 모색을 위하여 : 출산과 모성의 몸에 관한 페미니즘 논의와 출산 정치

김경례(Kim, Kyung-rye)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전문위원(사회학 박사)

kgr2037@naver.com

출산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거나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사건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문화, 기술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엄청난 노고를 필요로 하는 재/생산 노동이며, 동시에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은 의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주요한 참여 주체이다. 따라서 임신의 준비 단계부터 출산과정, 출산 이후의 보육 및 양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자원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별도의 출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

키워드 : 출산노동, 출산의 의료화, 출산기술, 재생산건강권, 출산정치

이 글은 김경례, 2014. 『난임여성의 체험과 출산기술의 정치』, 전남대 출판부, 제2장 제1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임.

1. 들어가며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면서 동시에 인구 및 노동력의 생산 및 재생산에 관한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으나 저출산 지원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저출산 현상을 두고 그것이 위기라고 주장하는 담론들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인구 절벽'을 운운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어 들고 부양 인구는 늘어나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다. 저출산 위기에 관한 지배적인 담론들에서 정작 여성과 개별커플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꺼리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저출산 지원정책이 본격화 되고 만혼과 보육 및 교육의 사회적 여건 미흡, 여성 및 청년에게 불평등한 사회구조 및 직장문화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더 이상 출산의 문제를 여성이나 개별 커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면서 저출산 지원정책을 청년정책, 노동정책, 워라밸 정책, 보육 및 교육정책, 성평등 정책 등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출산 및 양육휴가 등으로 대변되는 근로자의 모부성권 강화와 육아기 탄력근무제 등으로 대변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집중되고 있다. 보육 및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은 저출산 지원정책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인 정책이나 여전히 여성의 출산과정에서의 경험, 출산의 노고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및 단기 노동자, 장애여성, 비혼여성, 난임여성,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출산과정과 경험은 더욱 비가시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저출산 지원 정책의 관심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이 글은 현대 여성의 출산권, 재생산건강권, 출산방법의 선택과 출산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변화로 출산의 의료화(기술과학화)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페미니즘 출산 정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거나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사건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문화, 기술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엄청난 노고를 필요로 하는 재/생산 노동이며, 동시에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은 의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주요한 참여 주체이다. 따라서 임신의 준비 단계부터 출산과정, 출산 이후의 보육 및 양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자원과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별도의 출산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하에서는 그간 출산과 여성의 몸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논의와 한계, 시사점을 정리하고 필자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2. 성(sex)/젠더(gender), 공/사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서

출산과 모성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화는 몸과 섹슈얼리티 문제에 주목했던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주로 수행되었다. 이들에게 출산과 모성성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으로서 여성억압의 원인이거나 여성해방의 원천으로 다루어졌다(Tong, 1995: 110-138). 파이어스톤(Firestone)에게서 여성의 몸은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따라서 여성해방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몸을 통한 출산과 모성의 역할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restone, 1970). 이에 반해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파이어스톤의 생물학적 환원론을 비판하면서 여성억압의 원인을 생물학적 특성에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남성의 통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O'Brien, 1983; Rich, 1976). 남성들의 출산과정에서의 소외와 여성의 출산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의 생물학적 몸과 출산능력을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거해야 할 것은 가부장적 남성 권력이며 여성의 생물학적 몸을 통한 출산과 모성의 역할은 유지해야 할 여성 해방의 원천이라고 본다.

출산과 모성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은 모성성과 신생식기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출산보조기술)에 대한 논의에도 반영된다. 즉 모성성은 가부장체제에 의해 외적으로 강요된 이데올로기이거나 여성권력을 담보할 수 있게 해주는 해방적 잠재력으로 각각 의미화 된다.¹⁾ 또한 신생식기술은 생물학적 본능으로서의 모성성과 생식 중

1) 오브라이언(O'Brien)과 리치(Rich)가 생물학적 모성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고 해서 모성성을 생득적인 여성의 본능으로 생각했거나 전형적인 모성성이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브라이언은 강요된 모성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도 억

심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생물학적 혁명의 수단이거나 여성의 출산과정의 통제권을 기술과 학을 매개로 남성들이 빼앗아감으로써 가부장체제를 지속시키고 공고화하는 수단으로 각각 의미화 된다. 이는 신생식기술에 대한 낙관론과 비판론으로 전개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비판은 2절에 소개하였다.

출산과 모성성, 신생식기술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내부의 이러한 논쟁은 서로 대립되는 지점이 있으나 두 가지 점에서 공통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첫째, 임신-출산을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사건으로 본다. 둘째, 임신-출산이라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은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성별분업을 정당화하고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주요 기제이며, 이러한 억압과 차별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가부장적 남성 권력이다. 따라서 가부장적 지배와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파이어스톤이 생물학적 몸을 통한 출산을 거부하고 신생식기술의 발전과 그것의 이용을 주장했다면, 오브라이언과 리치 등의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모성을 둘러싼 제도나 문화를 바꾸고 출산 과정의 통제권을 여성들이 유지·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전형화된 모성의 역할과 모성성은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본능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밝혔고, 생식 중심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비판하였으며, 출산이 여성이나 개별 가족의 사적인 문제라는 통념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출산이나 양육의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모성을 의무가 아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로 자리매김했고 1970년대 서구사회의 재생산권리 운동을 촉발시켰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²⁾,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를 기치로 내 걸로 성(sex)/젠더와 공/사의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출산과 모성을 젠더의 문제, 공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모성보호 및 양육에 관한 법·제도를 만들고 출산조절(birth control)³⁾의 권리를 제기하는 등 정치적 의의를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초역사적이고 초계급적인 문제설정과 근대적 인식체계의 이분법적 문제설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여성의 몸과 모성성을 억압의 토대로 제시하던 여성권력의 토대로 제시하던 출산은 생물학적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일로 간주한다. 그럼으로써 모성적 몸을 힘의 원천인 자연이거나 가부장적 문화에 종속된 실체로 위치지우는 자연/문화의 이분법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둘째, 임신-출산을 모든 여성의 공통의 문제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수행하거나 거부하는 여성 주체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한다. 그럼으로써 여성 주체들의 다차원성과 복수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즉, 몸과 젠더를 고정된 존재적 실체나 개념으로, 여성들을 동질화된 집단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을 자연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면 출산 과정에서의 여성의 노고가 비가시화될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출산을 수행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하는 여성은 배제될 것이고, 출산을 문화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면 의도치 않게 출산을 수행하는 여성들을 가부장적 문화에 종속된 존재로만 위치 지우게 된다. 그럼으로써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변화하는 출산환경 속에서의 모성적 몸들의 ‘물질성’의 변화와 차이들, 그리고 생성 과정이 삭제된다. 몸들의 ‘물질성’이란 육체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그로츠나 해러웨이가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생물학적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몸 자체가 이미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며 우리가 몸에 대해 알고 있는 이해방식이나 규범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화의 효과라는 것이다. 이는 푸코가 이야기한 권력의 효과로서 권력이 각인된 몸이라는 발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로츠나 해러웨이는 푸코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물질적·기호적 몸들이 끊임없이 구성·재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몸을 권력이 각인되는 공간 만으로서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구성적인 공간으로서 위치지운다. 따라서 ‘몸의 물질성’은 생물학적 몸을 포함해 몸들이 의

1) 압의 원인을 저항의 원천으로 정치화하려고 하였고, 리치는 여성이 자녀와 맺는 ‘관계로서의 모성’과 남성의 통제 하에 있는 ‘체제로서의 모성’을 구분하면서 후자의 모성성을 비판하기 위해 전자의 모성성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문구로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 보바르도 여성의 생물학적 몸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출산은 실존주의적 맥락에서 즉각적 존재를 넘어서 대자적 존재가 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문제였다.

3) “출산조절이란, 여성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실천을 통칭하는 말로, 미국의 여성운동가 마거릿 생어(M. Sanger)가 여성들에게 안전한 피임을 보급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면서 자기 운동을 위한 이름으로 1914년 만들어진 용어이다”(배은경, 2005: 264). 여성을 출산의 주제로 위치 짓는 이러한 발상은 1970년대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재생산권리운동으로 이어진다.

미화 되고 구성되는 관계와 과정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몸과 젠더에 대한 이분법적이고 결정론적인 문제설정을 비판하고 몸과 젠더를 관계 및 끊임없이 구성·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여성 주체들의 복수성을 드러내고자 한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은 성차, 젠더, 몸을 문제시하며, 이성 중심의 근대적 주체설정을 비판하면서 몸을 복권하고 주체들의 힘과 생성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 탈근대적 논의들과 맥을 같이 한다.⁴⁾

먼저 이리가라이는 보편적 여성 정체성을 거부하고 여성 몸들의 복수성에 주목하면서 성차를 남성과의 차이 뿐만 아니라 여성들 간의 차이들로 확장시킨다(Irigaray, 2000).⁵⁾ 브라이도티는 이리가라이의 성차에 대한 문제 의식과 들뢰즈·가타리의 욕망의 정치학을 수용하여 “욕망하는 주체들을 분자적이고 유목적이고 복수적인 것으로 구성”하면서 “복수적인 여성의 체현된 목소리들을 위한 이동하는 입장들을 제공하는 유목적인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성차를 주장한다(Braidotti, 2004: 268-269).⁶⁾ 이들에게 몸들은 근대 서구 지성사의 동일자의 철학을 비판하고 다층적으로 성차화된 복수적인 여성 주체들을 드러내는 전략적인 지점이다.

육체 페미니스트로 유명한 그로츠(Grosz)는 몸이 “안과 바깥,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자아와 타자, 마음/몸의 이항대립이 연상시키는 이분법적 쌍들 사이의 대립을 재고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Grosz, 2001: 82).⁷⁾ 그래서 몸은 이분법적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쌍의 중층적인 지점에서 비결정적으로, 그리고 위태롭게 배회하는 문지방이자 경계선 개념”이 된다. 마찬가지로 몸을 생물학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류이며 “몸은 사회적·정치적·문화적·지리학적 각인의 공간이자 생산과 구성의 공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Grosz, 2001: 86-87). 따라서 몸은 자연이나 문화로 환원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젠더 또한 고정된 존재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와 맥락으로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젠더는 언제나 관계이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존재들의 범주이거나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Haraway, 2002: 28).” 또한 “젠더는 변화하거나 맥락화된 현상으로서,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특수한 일련의 관계를 둘러싼 상호 수렴의 지점이다”(Butler, 2008: 103). 즉, 전형화된 모성적 규범과 역할은 본질적으로 여성적이거나 가부장적이라기 보다는 버틀러의 용어를 빌자면 반복적 수행성(performativity)을 통해 획득된 결과이다. 따라서 출산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행위주체성(agency)⁸⁾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출산을 수행하는 행위를 통해 주체성의 구성과정을 탐색하고 형상화하는 것이다.

몸과 젠더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따라가 보면 몸과 젠더는 경계적 개념(Balsamo, 1996)이며 끊임없이 구성·재구성되는 관계와 과정들이다. 따라서 단일하지 않은 복수적 여성주체들의 차이와 행위주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모성적 몸이 자연이나 문화로 환원될 수 없듯이 모성성이나 모성적 욕망 또한 외적인 강요(이데올로기)나 자유주의적 선택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것은 상황과 맥락 속에서 다차원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출산의 의료화가 거의 완성되었고 기술과학의 개입 없는 임신·출산의 수행을 상상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기술과학의 가부장적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일부 에코페미니스트들처럼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여 기술과학을 거부하는 전략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4) 최근 페미니스트들은 몸, 젠더, 성차를 둘러싼 근대적인 이분법적 인식체계를 비판하고 그것들을 관계 및 과정으로서 설명하기 위해 몸의 복권과 주체성 생산에 관한 스피노자, 니체, 푸코, 들뢰즈, 가타리 등의 탈근대적 남성 학자들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전유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비판과 전유의 정도와 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남성학자들이 이성 중심의 근대적 주체 설정을 비판하기 위해 몸과 욕망의 문제, 자본주의 체제에 주목하는 것만큼 젠더나 가부장체제의 문제에는 주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태혜숙은 젠더나 가부장체제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거나 논의하더라도 부차화하는 남성학자들의 이론적 경향을 “각주의 정치학”이라고 비판한다(태혜숙, 2007: 35). 태혜숙이 지적한 것은 일면 사실이나 현실적인 정치적 실천을 위해 의미가 있는 이론들을 전유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남성학자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전유할 필요가 있다.

5) 이리가라이가 여성 주체의 복수성을 몸에서 찾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질주의적 설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리가라이는 몸을 이분법적이거나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질론적 혐의를 지우기 보다는 몸을 긍정적인 힘으로 복권시키기 위한 인식론적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6) 브라이도티는 들뢰즈·가타리의 욕망의 정치학, 유목민적·리좀적 사유를 수용하지만 그들이 성차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7) 그로츠는 라캉이 주체를 묘사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한 안과 밖이 연결되어 있는 뒤통수의 띠 개념을 수용하지만 라캉처럼 몸과 욕망을 결핍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구성의 장으로 본다.

8) 일반적으로 ‘agency’는 행위성, 또는 행위주체성으로 번역된다. ‘agency’는 주체가 사회구조나 지배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측면보다는 주체들이 “스스로를 정의하고 사결권을 행사하려는 개인적 의지나 사회적 집단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이다(Collins, 2009: 481).

오히려 권력이 출산과 여성의 몸을 자연화 하는 과정이 분석되어야 하며 자연화된 몸을 넘어서 “자연을 재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Haraway, 2002). 기술화된 출산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의 몸들은 기계나 유기체로 환원할 수 없는,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인 사이보그 주체이며, 자연도 문화도 아닌 몸들의 물질성의 변화(Haraway, 2003: 8-9)에 주목함으로써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가하는 모성의 정치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산을 자연화 하지 않고 모성성을 가부장적 지배이데올로기로 환원하지 않으며 모성을 수행하는 여성들을 피해자화하지 않으면서도 젠더권력관계의 배치를 바꾸고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가하기 위해서는, 모성적 몸의 물질성의 변화와 모성적 욕망의 생성 과정에 주목하면서 출산을 수행하는 몸들의 위치와 가치에 대한 재형상화가 필요하다.

또한 몸의 물질성의 변화과정에 주목하고 몸을 상황과 맥락 속에 위치지우고자 할 때 출산과 모성성을 가부장체제의 문제로만 환원할 수 없다. 가부장체제 만큼 자본주의 체제도 몸의 물질성의 변화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출산과 여성의 몸은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적 자원으로, 소비 영역으로 자본화되고 있다. 불임클리닉을 비롯한 의료산업 및 제약산업의 성장, 정자 및 난자 은행, 제대혈 은행 등의 각종 몸 보관 산업, 생식세포의 거래, 대리모를 통한 자궁의 거래 등은 출산시장의 형성과 몸의 상품화 및 자본화를 잘 보여준다. 이제 출산 및 입양을 포함해 아기를 얻는다는 것은 경제적 문제가 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베이비 비즈니스’라 불릴 만하다(Spar, 2007).⁹⁾

또한 생명체의 발생 기작과 원리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의과학적 지식이 중요한 생산력이 되면서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여성의 몸들은 출산과 상관없이도 과학적 연구의 자원이거나 기술적 개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신자유주의적 의료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출산과 여성의 몸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문제화해야 하며 젠더뿐만 아니라 계급, 인종, 지역 등의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몸들이 기술과학의 연구 및 산업적 자원으로 활용될 때 위계적으로 더 낮은 계급, 인종,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과 자본은 한편으로는 출산과 몸을 자연화하면서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일과 존재로 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몸들을 통해 개발된 의과학자들의 지식과 정보를 자본화하고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생산적인 노동으로 규정·보증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한다. 다시 말하면 몸을 ‘자연화’, 자연적 속성으로 간주하면서 의과학적 연구에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을 정당화하며 임신·출산을 생산적인 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것과 관련한 소비시장을 확장시킨다.

마찬가지로 신생식기술의 구성과 적용 과정에서 몸들의 노동참여를 비가시화하고 의과학자들에 의해 생산된 지식을 과학으로, 몸 체험성에 근거한 여성의 지식을 비과학으로 위계화한다. 그럼으로써 여성들을 신생식기술의 대상이거나 수혜자, 소비자로서만 위치 지운다. 따라서 기술과학과 권력 및 자본이 절합된 현재의 상황에서 몸들의 생산성과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노동의 재개념화를 통한 가치투쟁이 필요하다. “과학적 몸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급진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른 종류의 특성과 효율성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몸은 다른 종류의 참여와 개입을 요구(Haraway, 2002: 376)”하기 때문이다.

9) 이런 점에서 현재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며,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출산 및 양육비를 고려할 때 부의 상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부부가 많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일이 되었으며 가난한 난임여성들의 경우, 불임시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적 접근권이 (재)생산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다.

3. (재)생산 노동과정으로서의 출산

성/젠더, 공/사, 자연/문화의 이분법과 마찬가지로 생산/재생산의 이분법과 노동/비노동의 이분법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재생산' 개념과 '노동' 개념은 둘 다 논쟁적인 개념이다. 이는 재생산 영역의 범주설정과 재생산 개념의 다의성, 재생산과 생산 사이의 관계 설정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출산을 재생산 개념으로, 특히 인간 재생산의 범주로 설정한 것은 전통적 맑스주의를 비판,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역사의 결정적 계기로서 생산과 재생산을 두 축으로 제시하였다.¹⁰⁾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생산보다는 생산의 영역에 주목했으며, 이러한 재생산에 대한 생산의 우위성 테제에 대한 비판은 전통적 맑스주의를 비판, 확장하고자 했던 맑스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 모두에 의해 수행되었다.

오브라이언(O'Brian)은 생산노동에 대한 맑스의 이론적 패러다임에 입각해 여성의 일들, 특히 임신과 출산을 생산과 대비되는 재생산 노동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노동과 노동과정이 어떠한 구조로 여성역임을 형성하는가를 밝혔다(O'Brian, 1983). 오브라이언이 임신과 출산을 재생산 노동으로 개념화한 것은 여성의 역임을 자본과의 관계성 안에서가 아니라 가부장제 아래에서의 독립적인 성별역압체계로 설명하기 위해서이다(이상화, 1988: 3). 이를 통해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적 맑스주의 패러다임이 가부장체제와 젠더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일인 임신·출산, 가사, 양육 등을 생산에 대비되는 재생산노동으로 의제화하면서 노동력 재생산노동이나 인간 또는 생물학적 재생산의 문제에 천착하였다.¹¹⁾

이에 반해 전통적 맑스주의를 비판·재구성하고자 했던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조건과 생산관계의 사회적 재생산 문제에 주목하였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대변되는 비판이론가들이나 맑스주의의 세례를 받은 문화이론가들이 주목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이토록 강고하게 유지, 재생산되는가 하는 것이었고 이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현실적인 정치와 맞물려 있는 것이었다. 알튀세르 역시 가족과 학교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를 통해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생산조건이 재생산됨으로써 자본주의 구조를 공고화 한다고 본다(Althusser, 2007). 알튀세르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구조'를 강조함으로써 주체를 사라지게 했다면, 현대의 대표적인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구조와 행위 간의 간극을 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으로 좁혀보려 했지만 재생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교육체제를 통한 계급재생산의 문제를 분석한다(Bourdieu, 2000).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와 계급 재생산 문제에만 주목했듯이 오브라이언도 임신·출산을 사적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는 일로, 그리고 가부장체제와 연결된 억압적인 젠더 재생산 문제로만 바라보았다. 즉, 생산과 재생산의 이분법을 그대로 둔 채 생산과 재생산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생산과 재생산,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은 인위적이며 남성중심적인 이원론적 사고체계이다(Jagger, 1999). 이런 점에서 생산/재생산의 이분법은 남성/여성의 이분법과 연관되어 재생산을 그저 생산에 봉사하기 위해 있는 사후 영역으로 치부하기 위한 "남성중심적 자본주의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태혜숙, 2007: 42). 또한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 여성이 수행하는 "모성노동, 가사노동, 섹스노동을 비생산적이고 생산에 부차적이라는 의미의 재생산 노동이 아니라 인간을 생산하고 쾌락을 생산하는 생산노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노동들을 가치 있고 생산적인 일로 의미화하기 위한 것이다(고정갑희, 2007: 26).

10) "자신들의 삶을 매일매일 재생산하는 인간은 자신들의 종족을 번식시킨다는 것... 최초의 인류 이래... 노동을 통한 자기 삶의 생산과 생식을 통한 새 생명의 생산, 이 둘 모두를 포함한 생명의 생산은... 이중의 관계로, 즉 한편으로는 자연적 관계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Marx and Engels, 1988: 57-58). "역사에서 결정적 계기는 직접적 생활의 생산 및 재생산이다. 그 하나는 생활수단, 즉 의식주의 대상과 이에 필요한 도구의 생산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그 자체의 생산, 즉 종족의 번식이다"(Engels, 1987: 6).

11) 에드홀름(Edholm)과 해리스(Harris) 그리고 영(Young)은 재생산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범주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력 재생산, 인간 또는 생물학적 재생산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Edholm, Harris, Young, 1977; Barrett, 1995: 35 재인용). 이 가운데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가사노동, 양육노동 등의 노동력 재생산노동과 임신·출산이라는 인간 또는 생물학적 재생산 노동을 분석하였고, 재생산 영역에 대한 재이론화를 통해 전통적 맑스주의를 비판적으로 확장하고자 했던 맑스주의자들은 주로 가족, 학교, 종교 등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를 활용한 자본주의의 사회적 재생산 문제를 다루었다.

맑스주의 페미니스트인 포르투나티는 이미 오래 전에 가사노동, 출산노동과 같은 재생산 노동을 가치를 발생시키는 '생산적인' 노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Fortunati, 1997).

임신·출산을 재생산 영역으로만 규정하고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로 의미화 하지 않는 남성중심적 자본주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에서의 노동 개념의 규정에서도 나타난다. "정치경제학에서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가정 안의 일이 창조적인 노동과정으로 표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자연과 본능의 비경제학적인 세계로 분류되었다"(Ferber and Nelson ed. 1993: 140).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에서 노동은 가정 밖에서 자본에 고용되어 물질적인 상품을 생산하고 임금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가정 안에서 수행되는 임신·출산은 비생산, 무임금의 영역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자본에 고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상품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생산하는 일이며 임금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¹²⁾

임신·출산이 비생산적이고 비가치적인 부활노동으로 규정되는 것은 신생식기술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는 여성주체들의 노동참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몸들을 의과학적 연구의 자원으로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과 연동된다. 또한 모성이나 양육의 사회적 보장 및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보다는 출산과 교육시장의 개별적인 소비자로서만 위치 지워지는 것과 동일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술화된 임신·출산의 수행은 사회적 생산노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는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는 모성적 몸들이 단지 가족구성원을 늘리는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력에 어떻게 참여하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개인의 소비적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요한다는 점에서 소비도 "사회적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논의(Baudrillard, 1991: 111)와 생산이 물질적 상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을 넘어 사회화 되었으며 생산적 노동의 형태와 성격이 점점 협업화되고 비물질적으로 된다는 논의(Negri and Hardt, 2001)를 끌어들이려 한다.¹³⁾

특히 네그리가 말하는 과학적 지식 노동의 협업적 특성은 의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생산력이 되어가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는 몸들의 지식노동참여와 생산성에 주목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의과학자 집단이나 관련 산업이 그러한 "사회적 협업의 과정이나 형태 및 산물을 어떻게 장악하고 수취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게 해 준다(윤수중, 2002: 63).¹⁴⁾

즉 출산을 수행하는 몸들은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의과학적 지식구성예의 노동참여를 통해 사회적 생산력에 연결된다. 또한 기술화된 출산과정은 의료진과의 소통적, 상호작용적 노동뿐만 아니라 네그리가 말하는 정서적 노동과 비슷한 맥락에서 수많은 감정노동이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이다.¹⁵⁾

따라서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는 여성주체와 몸들은 생식과 관련한 의과학적 지식이나 정보의 구성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거나 그것에 수동적으로 순응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체험과 해석, 그리고 몸의 물질성의 구성과정을 통해 의과학적 지식생산에 기여하고 개입한다.

12) 대리모나 생식세포 판매자의 모성노동은 위탁부모 및 수요자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경우에는 위탁부모나 수요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대가가 일종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13) 네그리는 이를 사회적 공장, 사회적 노동자로 설명한다. 이제 생산은 사회적 생산으로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라는 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소통, 관계, 삶 형태의 생산이라는 사회적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그리의 이러한 문제설정은 주체성 생산과 연결되는데, 전통적 노동계급이 산업노동자와 임금노동자만을 지칭했다면 전업주부, 학생, 실업자, 환자 등도 사회적 노동을 수행하는 생산적 주체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드리야르는 몸을 적극적으로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본주의에 종속된 것으로 설명하지만, 네그리는 몸을 스피노자의 역능 개념을 끌어들이어 구성·재구성하는 생성적 힘으로 설명한다. 네그리의 생산적 노동의 성격 변화 및 비물질적 노동에 대한 설명은 Negri and Hardt, 2001: 61-62를 참조. 여기서 네그리는 비물질적 노동을 소통적 노동, 상호작용적 노동, 정서적 노동으로 제시한다.

14)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생산된 지식에 대해 특정 과학기술자나 기업에 배타적인 독점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허제도에 대해 네그리는 바로 이 생산의 공통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에 의해 침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Negri and Hardt, 2008: 223-233). 따라서 네그리에게서 과학적 지식은 생산적 몸들의 사회적 협업을 통해서 구성되며 "공통의 부(common wealth)"로서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Negri and Hardt, 2009).

15) 최근에 돌봄노동이나 감정노동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사회적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자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나 감정노동을 요구받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감정 관리 및 감정의 상품화 문제를 다룬다(Hochschild, 2003).

모성적 몸 체험성을 통해 생산된 지식은 기술생명권력의 작동에 의해 비과학, 비공식적인 지식으로 배제, 폄하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식과 관련한 의과학적 지식은 의료진과 모성적 몸들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생산된 결과이다. 신생식기술을 이용한 생명의 생산 역시 의료진과 모성적 몸들의 협업 결과이다. 또한 신생식기술과 의과학적 지식은 완전하다기 보다는 모성적 몸들을 통해 불완전성이 드러나며 불완전성은 의과학적 연구를 추동하는 힘이 된다.

재생산/생산의 이분법을 비판하며 생산에 대비해 재생산에 부여된 부차성과 비생산성을 극복하고 그 가치와 생산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을 괄호를 붙여 (재)생산 노동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임신·출산의 생산성이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시장에서 교환가치화 되는 생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술화된 출산의 수행을 통해 생산하는 관계와 소통, 지식, 삶의 형태와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임신·출산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과학적 지식생산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성과 가치를 수취당함으로써 신생식기술의 통제권을 박탈당하고 객체, 수혜자로서만 위치지워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기술화된 출산수행은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노동이라는 개념에 부착되어 있는 경제적 의미의 생산성을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리모나 생식세포 판매 여성의 계약에 의한 기술화된 출산노동은 몸들과 출산이 자본화 되고 위탁부부나 구매자에게 받는 금전적 대가가 일종의 임금의 형태가 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의미의 생명생산 노동이다. 생명생산을 수행하기 위해 대리모나 생식세포를 구매한 여성들은 소비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생식세포와 자궁을 이용해 기술화된 출산을 수행하는 난임여성들과 생식세포 공여 및 판매 여성, 그리고 대리모 여성은 모성노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¹⁶⁾

하지만 모든 출산은 생명생산과 연결되고 기술화된 출산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들의 몸들은 의과학적 지식 생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생산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노동을 관계나 소통, 삶의 방식의 생산을 포함하는 사회적 노동 개념으로 확장시키면 생산과 재생산, 노동과 활동(activity)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여성들의 임신·출산을 그 수행과정에서의 생산성과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재)생산 노동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주체성(난임여성, 장애여성 등)을 드러내는 것과 연동된다.

또한 여성들이 임신·출산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기술과학의 개입이라는 변화하는 출산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자본과 권력이 몸들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몸들의 생산적 노동 참여가 통제와 착취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해러웨이가 말했던 몸들의 물질성의 변화에 주목해 역사적으로 다른 종류의 몸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일이고 다른 방식의 모성과 신생식기술의 정치를 구상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4. (재)생산 정치의 문제설정

신생식기술과 모성성을 여성들의 입장에서 정치화할 때 기존의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¹⁷⁾ 확보를 쟁점으로 제기해 온 (재)생산의 정치는 몇 가지 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생산권의 내용과 강조점은 변화하는 출산환경과 여성들의 상이한 목적,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재)생산권은 보편적 권리이거나 자유주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 비판적으로 구성,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Ehrenreich ed, 2008).

16) 출산과정에서의 기술과학의 개입은 모성의 분화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노동의 내용과 사회적 성격, 그리고 각각의 모성의 사회적 위치까지도 복잡하게 분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모성 노동의 이론적 범주화와 개념설정에도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7) 재생산권이란 여성이 임신출산, 피임, 낙태 등의 재생산과 관련된 사안에서 가져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1960, 70년대 서구 여성운동을 통해 주창되었다. 이 개념은 점차 여성의 성적 권리와 몸에 대한 통제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1994년 국제인구발전회의(ICPD)와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거치면서 재생산 건강권(reproductive health right)이라는 개념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통용되었다(조영미, 2004: 9-10).

첫째, 몸의 통합성(bodily integrity)에 입각해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bodily self-determination)과 출산과정의 통제권을 주장하는 (재)생산권의 문제설정에 관한 것이다(Petchesky and Judd, 1998). 페미니스트들은 생명체의 발생과 성장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임신·출산, 피임, 낙태 등 생식과 관련한 문제를 여성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생식기술, 특히 신생식기술과 유전공학을 비롯한 생명공학은 여성 몸의 통합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해 왔다. 여성 몸의 통합성은 주로 기술과학적 개입으로 인한 몸의 분절화와 비정상화에 대한 비판(Handwerker, 1995; 조주현, 2006)으로 이어졌고, 몸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 위해 출산과정의 통제권이 여성에게서 의료전문가로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권력을 문제화하였다.

문제는 몸의 통합성인데, 그것이 더 이상 자기결정권과 통제권 확보를 위한 논거가 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즉 몸의 위치와 물질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인데, 특히 신생식기술과학의 개입을 통한 임신·출산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체의 수정 및 배양이 여성의 유기체적 몸이 아니라 실험실로 이전되었으며 생식세포의 수정력과 수정란의 착상력이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출산과정의 통제권에 대한 주장은 여성의 유기체적 몸을 넘어서 분자적 몸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분자적 몸들로부터 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의과학자들의 노동력만을 다루는 것도 제한적이다. 수정 및 배양이 실험실로 이전되었다는 것과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생명생산의 과정이 의과학자들의 기술적 처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생명생산의 생산적 힘이 의과학자들의 지식과 기술로부터 온다고 의미화 됨으로써 기술과학주의를 더욱 조장하고 모성적 몸들의 노동참여와 생산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빼내고 수정, 배양하는 것은 의과학자들의 노동이지만 그것이 임신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난자의 질이 관건이 된다.

신생식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난임여성들은 소위 '건강한' 난자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몸 관리를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체의 생산은 난임여성들과 의과학자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생산력의 궁극적인 출처는 난임여성들의 몸들이다. 따라서 신생식기술과 그것의 개입을 통한 출산과정의 통제권은 출산이 여성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생식기술이 여성의 몸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협이나 모성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여성의 몸들이 의과학적 지식과 생명생산 노동에 참여하고 그것을 추동하는 궁극적인 힘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둘째, 모성적 욕망에 대한 문제설정이다. 페미니스트들은 모성성을 본능으로 규정해 여성을 억압하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저항하기 위해 가부장제에 의해 강요되는 모성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 이는 의도치 않게 모성적 욕망을 외적 강요로만 환원함으로써 모성적 주체를 객체화하며 무엇보다도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을 구체화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아이를 갖고자 하는 모성적 욕망은 결핍이나 아이에 대한 필요나 확산, 요구와는 분명히 구별되며 그것들로 환원할 수 없다(Moro, 2009: 157). 따라서 모성적 욕망을 생득적인 본능이나 외적 강요의 내면화로 환원하기 보다는 여성들의 몸적, 사회적 위치에서 모성적 욕망이 생성되는 다차원적인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욕망을 생성적 과정이며 생산하는 힘으로 설명한 들뢰즈·가타리의 욕망론과 되기(becoming)이론은 난임여성들의 모성적 욕망과 주체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Deleuze and Guattari, 2000; Guattari, 1998).¹⁸⁾

이는 권력과 자본이 표준적인 모성상과 수행방식을 만들어내는 과정뿐만 아니라 난임여성들이 그것들로부터 탈주하는 과정을 탐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권리인 건강권의 모순에 관한 것인데, 이는 의료적 접근권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의료적 개입으로 인한 건강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해석될 수도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불임기술의 위험성과 불완전성, 관련 정보의 고지 부재, 그로 인한 여성 건강권의 침해 등을 비판해 왔다. 즉 의료적 개입으로 인한 여성건강침해에 주목해 온 것이다.

18) 들뢰즈와 가타리는 『앙파-오이디푸스』에서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이 욕망을 결핍으로 상정하고 오이디푸스적 가족감각 구조 안에 가둬버린다고 비판함으로써 욕망을 생성으로, 사회적 욕망으로 확장시킨다(Deleuze and Guattari, 2000). 즉 욕망을 “충동적 에너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Guattari, 2004: 320). 욕망에 대한 이러한 문제설정을 바탕으로 가타리는 표준화된 인간상을 제시하고 내면화하려는 권력으로부터 탈주하는 욕망투쟁을 제안한다(Guattari, 1998). 혁명은 일상생활에서부터의 욕망투쟁을 통해 발생하며 욕망투쟁은 사회적 소수자 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들뢰즈·가타리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난임여성 되기를 통해 기술생명권력이 난임여성들에게 전형화된 모성상과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내면화하려는 과정뿐만 아니라 난임여성들의 집단적 욕망투쟁이 이것들을 어떻게 변형시켜 가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재)생산권의 내용이 확장되어 온 역사를 보면 이러한 모순은 여성들의 몸적, 사회적 조건이 다르다는 것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 피임권과 낙태권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 여성들의 출산거부 운동이 한창일 때 가난한 흑인여성들과 유색인종여성들은 의료적 서비스를 이용해 건강한 아이를 낳을 권리를 주장했고 (재)생산권은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Nelson, 2003).

난임여성들이나 장애여성들의 경우에도, 특히 가난한 여성들은 의료적 개입으로 인한 건강침해와 의료적 접근권과의 관계에서 의료적 접근권에 우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난임여성들이 불임시술과정이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자신의 몸에서 발견되는 위험징후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난임여성들은 의사들의 권유와 상관없이 불임시술을 중단하거나 시술 간격을 넓히는 등의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따라서 (재)생산권의 내용은 모든 여성들에게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으며 여성들의 몸적, 사회적 위치와 조건들에 따라 그 강조점과 지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재)생산권을 페미니즘적으로 정치화 하는 것은 그들의 몸적, 사회적 조건들과 상황성에 따라 (재)생산권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재)생산권은 끊임없이 구성·재구성되어야 할 정치적 장이 된다.

| 참고문헌 |

- Tong, R. 1995. 이소영 역.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한신문화사. (원제: Feminist Thought -A More Comprehensive Introduction).
- Firestone, S. 1970. The Dialectic of Sex: The Case for Feminist Revolution. Bantam Books. (국역: 성의 변증법).
- O'Brien, Mary. 1983.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Routledge.
- Rich, A. 1976. Of Woman Born -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W.W,Norton & Company. (역서: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모성의 신화에 대한 반성)
- 배은경. 2005.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1960~70년대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사회와 역사』, 통권67호, pp.260- 299. 문학과지성사.
- Irigaray, L. 2000. 이은민 역.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원제: Ce sexe qui n'en est pas un).
- 태혜숙. 2007. 「대항지구화와 여성주의 주체생산 모델: 몸-섹슈얼리티-노동-자본-자연」. 『여성이론』, 통권 제17호, (2007년 겨울), pp.32-51. 여이연.
- Braidotti, Rosi. 2004.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여이연. (원제: Nomadic Subject).
- Grosz, E. 2001. 임옥희 역. 『뒤틀린 몸』. 여이연. (원제: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
- Haraway, Donna J. 2002. 민경숙 역.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동문선. (원제: Simians, Cyborgs and Women).
- _____. 2003. The Haraway Reader. Routledge.
- Butler, Judith. 2008.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원제: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 Balsamo, A. 1996.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Reading Cyborg Women. Duke University Press. (김경례 역. 2012. 『젠더화된 몸의 기술 -사이보그 여성읽기』.아르케.)
- Spar, L. Debora. 2007. 심재관 역. 『베이비 비즈니스』. 한스미디어. (원제: The Baby Business).
- Marx, K and F. Engels. 1988. 박재희 역. 『독일 이데올로기』. 청년사. (원제: Die Deutsche Ideologie).
- Engels, F. 1987. 김대웅 역.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아침. (원제: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 이상화. 1988. 「생물학적 재생산 과정의 변증법 : 재생산 노동에 관한 시론적 일 고찰」. 『한국여성학 4』, (88.10),

pp.7-26. 한국여성학회.

- Althusser, L. 2007. 김웅권 역.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재생산에 대하여』. 동문선. (원제: “Idéologie et Appareils Idéologiques D'état”, in Sur La Reproduction).
- Bourdieu, Pierre. 2000. 이상호 역. 『재생산: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 동문선. (원제: La reproduction. Éléments pour une théorie du système d'enseignement).
- Jagger, A. 1999. 공미혜·이한옥 역. 『여성해방론과 인간본성』. 이론과실천. (원제: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 Edholm, Felicity and Olivis Harris, Kate Young. 1997. “Conceptualizing Women” in Critique of Anthropology, nos.9/10.
- Barrett, Michèle. 1995. 신현옥 외 역.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여성사. (원제: Women's oppression today: Problems in Marxist feminist analysis).
- 고정갑희. 2007. 「여성주의 이론생산과 여성운동, 사회운동: 가부장체제의 사막에서 이론의 오아시스를 찾아나간다」. 『여/성이론』, 통권 17호. 여이연.
- Fortunati, Leopoldina. 1997. 윤수중 역. 『재생산의 비밀』. 박종철출판사. (원제: L'arcano della riproduzione: Casalinghe, prostitute, operai e capitale).
- Ferber, M. A. and J. Nelson. 1993. Beyond Economic Man: Feminist Theory and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국역: 남성들의 경제학을 넘어서).
- Baudrillard, Jean. 1991.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원제: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 Negri, A. and M. Hardt. 2001. 윤수중 역. 『제국』. 이학사. (원제: Empire).
- _____. 2008. 조정환 외 역. 『다중』. 세종서적. (원제: Multitude).
- _____. 2009. Common Wealth: : Economics for a Crowded Planet. Harvard Univ. (역서: 공동체: 자본과 국가너머의 세계).
- 윤수중. 2002. 『자유의 공간을 찾아서』. 문화과학사.
- Ehrenreich, N(ed.). 2008. The Reproductive Rights Reader. New York Univ.
- Petchesky, R. and K. Judd. 1998. Negotiating Reproductive Rights: Women's Perspective Across Countries and Cultures. Zed Books.
- Handwerker, L. 1995. “The Hen That Can't Lay an Egg: Conceptions of Female Infertility in Modern China,” in Terry, J. & J. Urla, Deviant Bodies. Indiana University Press.
- 조주현. 2006. 「난자: 생명기술의 시선과 여성 몸 체험의 정치성」. 『한국여성학』, 제22집 제2호, pp.5-40. 한국여성학회.
- 조영미. 2004. 「출산의 의료화과정과 여성의 재생산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Moro, M. R. 2009. 김성희 역. 「욕망에 관한 짧은 이야기」. 『성의 역사와 아이를 가지고 싶은 욕망』. 알마. (원제: “Petite histoire sur le désir”, in Pierre Jouannet et al, Histoires de Sexe et Désir D'enfant).
- Deleuze, G. and Felix Guattari. 2000. 최명관 역. 『앙띠 오이디푸스』. 민음사. (원제: L'Anti-Oedipe -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 Guattari, Félix. 1998. 윤수중 역. 『분자혁명』. 푸른숲. (원제: La révolution moléculaire).
- _____. 2004. 「권력구성체의 적분으로서 자본」. 윤수중 편역. 『가타리가 실천하는 욕망과 혁명』. 문화과학사. (원제: “Le Capital comme Intégrale des Formations de Pouvoir”, in La Révolution Moléculaire).
- Nelson, J. A. 2003. Women of Color and the Reproductive Rights Movement. New York University Press.



“그들은 왜 그렇게 무자비 할 수 밖에 없었던가?”
“또 다른 그들은 왜 무모함을 알면서도 그 무자비함
에 맞설 수 밖에 없었던 걸까?”

소년이 온다

저자: 한강
출판사: 창비
출판일: 2014.05.19

이 소설의 작가는 “한강”이다. 한국 문학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명성을 얻은 작가이다. 이 명성을 얻는 중요한 계기가 ‘한국인 최초 맨부커상 수상작가’라는 타이틀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타이틀을 얻은 작가가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데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한강은 1970년 11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태어났으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강이라는 작가는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내놓았을 때부터, ‘치밀하고 빈틈없는 세부, 비약이나 단절이 없는 긴밀한 서사 구성, 풍부한 상징과 삽화들 같은 미덕으로 한 젊은 마이스터의 탄생을 예감케 한다’는 파격적인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오늘 소개할 책『소년이 온다』는 한강의 여섯 번째 소설이다. 우리 지역의 아픔이 담겨있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의 시간을 소설에 담았다. 이 소설 속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이다. “이 작품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창비문학블로그 ‘창문’에서 연재했던 작품으로 지금까지의 작품세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통해 저자 특유의 정교하고도 밀도 있는 문장으로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의 고통받는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_ 출판사 책소개

책을 손에 잡고 읽고 참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광주에서 살아가면서 5.18과 관련해 참 많은 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지만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으로 사진과 증언으로만 그때를 상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책의 힘일까? 작가 한강의 능력일까? 한줄 한줄 책을 읽으면서 가슴 한 칸이 먹먹해지며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무고한 영혼들의 말을 대신 전하는 듯한 한강의 문장은 그 날 이후 수많은 역사 중에 하나의 기억으로 무심하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닌, 지금도 쓰여질 부분이 너무 많기에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듯 하다.

소설 속 주인공 동호는 당시 중학교 3학년 소년이다. 시위 현장에서 절친한 친구였던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합동분양소가 차려진 도청 상무관에서 고등학생 누나들과 함께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는다. 매일같이 상무관으로 들어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며 말 없는 혼을 위로하기 위해 초를 밝히던 그는 시신들 사이에서 눈앞에서 허망하게 보낸 친구 정대의 처참한 죽음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그리고 그 날 도청, 너무 어리다며 돌아가라는 형과 누나들 몰래 동호는 그 자리에 남게 되고, 5·18 이후 경찰에 연행되어 끔찍한 고문을 받으며 살아 있다는 것을 차욕스러운 고통으로 여기기며 무력감에 빠진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중략)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언가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룰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 소년이 온다 中 p.114

그 양심이 또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다.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정대근교수

|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전문위원 |

정대근 문헌정보학 박사, 더함 경제문화연구소 소장,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권은비 생활과학 박사,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강사, 사회복지법인 권동식아벤티노재단 사무국장
김경례 사회학 박사,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김란희 여성학 석사,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상임이사
김수환 도시계획 박사, 광주남구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영미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종완 평생교육학 석사, (사)광주광역시평생교육사협회 사무처장
김태호 행정학 박사수료, 국제기후환경센터 전략기획실장
김해경 미술학 박사,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광주미술문화연구소 연구원
김 현 철학 박사,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학술연구교수
박경동 사회학 박사수료, 광주문화재단 팀장
박철희 경제학 박사,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BK사업팀 학술연구교수
서승호 사회복지학 학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총괄매니저
선봉규 정치학 박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안수창 공학 박사, 한국광기술원 기술사업화팀 책임연구원
오창민 사회학 박사수료,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상임이사
윤영선 경제학 박사수료,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장/대표
윤희철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이숙영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주)좋은친구들 기획이사
이철승 경영학 박사, 광주지역사업평가단 팀장
임남수 법학 박사,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책임연구원
전창진 도시지역개발학 부동산학 박사, 광주송정역세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정은주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조선대학교 문화학과 초빙객원교수
주문희 교육학 박사, 광주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최지혜 경제학 박사,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연구교수
최혜원 전기공학 박사, (재)녹색에너지연구원 풍력해양연구실 선임연구원
홍성운 행정학 박사, 광주대학교 경찰법행정학부 교수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포커스

2020.09. Vol.2 No.3

The Community of Economics and Culture
DEOHAM FOCUS

발행처 더함 경제문화연구소(북더함)

발행일 2020.09.16

편집인 정대근·김정훈

디자인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101-6

전화 062.431.6339 FAX 062.262.6340

<http://www.eccplus.co.kr>

ISSN 2672-2013